

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과 사회적지지가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

정은영¹, 유은영^{2*}

¹광주보건대학교 보건행정과 겸임교수, ²광주보건대학교 보건행정과 교수

Influence of SNS Addiction tendency and social support on cyber violence in college students

Eun-Yeong Jung¹, Eun-Yeong Yu^{2*}

¹Department of Health Administration, Gwangju Health University, Adjunct professor

²Department of Health Administration, Gwangju Health University, Professor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SNS 중독 경향성과 사회적 지지가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된 연구이다. 자료수집은 33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고 SPSS 18.0 프로그램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SNS 중독 경향성은 평균 1.81 ± 0.55 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는 평균 4.00 ± 0.78 으로 높은 수준이며, 사이버폭력에서는 평균 1.38 ± 0.59 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SNS 중독 경향성 및 SNS 게시 빈도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사회적 지지와 학년에서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 중독 경향성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지지가 감소할수록 사이버폭력이 증가하였고, 1학년에 비하여 2학년, 3학년에서 사이버폭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대학생에 알맞은 사이버 사용 교육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하며 자기 통제력을 길러 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SNS 중독경향성, 사회적지지, 사이버 폭력, SNS 게시빈도, 대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NS addiction tendency and social support on cyber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through a structured questionnaire for 330 college students and analyzed through SPSS 18.0 progra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NS addiction tendency was low as 1.81 ± 0.55 , social support was 4.00 ± 0.78 and cyber violence was 1.38 ± 0.59 .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NS addiction tendency and SNS posting frequency, and there was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grade. Cyber violence increased as the tendency of SNS addiction increased, as social support decreased, and cyber violence decreased in the second and third graders compared to the first grade.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cyber education and group counseling program suitable for college students and it will be necessary to make effort to raise self - control.

Key Words : SNS addiction tendency, Social support, Cyber violence, SNS posting frequency, College students

1. 서론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수년간 증가세를 유지하며 사

상 처음 5천만 명을 넘어섰다. 1인당 1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전체 연령대 중 20대의 SNS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며[1], 이로 인해 SNS 사용은 대학생의 일상

*Corresponding Author : Eun-Yeong Yu(yuy36@ghu.ac.kr)

Received October 8, 2018

Accepted December 20, 2018

Revised November 27, 2018

Published December 28, 2018

생활과 문화생활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SNS란, 인터넷상에서 여러 지인들과 친구 및 동료 등의 새로운 학맥을 형성하거나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관계를 보다 더 강화하여 다각적인 휴먼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서비스를 말한다[2]. 즉 SNS는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제공하도록 IT기술을 접목시켜[3] 오프라인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 왔던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 및 유대관계 기능을 인터넷 연결과 클릭만으로 신속한 지식을 전하는 일, 개인의 관심사 공유, 정보의 개방 및 공유 등의 특징으로 간단하고 손쉽게 이용하도록 해주었다[4].

대인관계 지지는 인식된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를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평안한 대인관계를 통해 주고받게 되는 마음, 관심, 논리적 해결을 위한 조언, 자신에 대한 확신 등 모든 사물의 지지와 관심에 대한 도움을 의미 한다[5]. 즉 이는 SNS 사용자를 둘러싼 의미 있는 관계체계로서 가족, 친구, 지인 등을 포함하는 중요한 공동체적 관계로부터 받는 지지자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6].

친밀한 대인관계를 중점과업으로 지인들과의 관계나 반응 등에 민감하며 공동생활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대학생에게[7]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기능을 가진 SNS는 거부할 수 없는 가장 접근이 가능한 매개체이다. 실제로 한국인터넷진흥원[8]의 컴퓨터 통신망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6세 이상의 사용자의 68.2%가 SNS 이용자이며, 10명 중 7명(76.5%)은 '친교/교제를 위해서' SNS를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계청(2017)의 조사에서는 만 3세 이상 인터넷 사용자 중 주 1회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은 97.9%이며, 인터넷 사용자의 주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은 15.7시간으로 조사되었다. SNS 서비스 이용기기로는 데스크톱(36.5%) 대비 스마트폰(99.7%)이 크게 사용되어 기존 데스크톱에서 스마트폰 중심으로의 변화가 가장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SNS의 지나친 이용은 쉽고 편리한 유대 관리 및 정보 공개라는 긍정적인 것과는 반대로 자료의 오남용, 프라이버시 침해, 의사소통의 단절, SNS의 중독 등의 의도치 않은 현상을 보인다[9]. SNS의 중독 경향성은 스마트폰 중독과 유사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스마트폰 중독이 정신건강과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10]과 유사하게 SNS의 중독 경향성 또한 근심과 쓸쓸함을 유발하고 대인관계 만족감에도 영향을 미친다[11]. 또한 박지

선[12]은 인터넷 중독이 스마트폰 중독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지목하며 인터넷의 중독 정도가 높고,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길어질수록 스마트폰의 중독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강주연[13], 김보연[14], 박용민[15], 서지혜[16]는 휴식시간의 감소, 높은 일상생활의 긴장상태, 낮은 욕구와 높은 침울 감은 스마트폰 중독을 야기하는 요인임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보고로 볼 때, SNS는 개입, 교호 작용, 의사소통의 특징이 강한 만큼 SNS 중독 경향성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사건 발생 시 이른 시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조정은 청소년을 목표로 교육에 집중하였으나 대학생에 대한 교육이 없음을 부각한 바[17], 대학생들은 초·중·고등학생에 비해 시간적인 여유가 많고, 조직적으로 제약이 낮으므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SNS의 중독 실태를 파악하고,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원인을 찾아 대책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SNS의 이용이 활발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SNS의 중독 경향성과 사회적 지지가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SNS로 인한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여 적절한 사용과 사이버폭력을 줄이는데 기초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SNS 중독 경향성과 사회적 지지가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학생의 사이버폭력 관계에서 SNS 중독 경향성과 사회적 지지가 조절 효과를 가지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학생의 SNS 중독 경향성, 사회적 지지, 사이버폭력의 정도에 대해 알아본다.
- 2)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알아본다.
- 3) 대학생의 SNS 중독 경향성, 사회적 지지, 사이버폭력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 4) 다변량 분석을 이용하여 대학생의 SNS 중독 경향성, 사회적 지지,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대상은 G시에 위치한 4개 대학 재학 중이며 설문 응답에 동의한 대학생에게 2017년 10월 10일부터 11월 3일까지 연구자가 연구대상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 대상 대학교마다 설문지 기입 방법에 대해 소개한 후 자기 기입법으로 기록토록 하였으며 설문 관련 협조자를 지정하였다. 회수방법은 설문 협조자가 손수 거두어 연구자에게 우편으로 우송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전체 330명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이중 응답이 불충분하고 성실하지 못한 6명을 제외한 324명의 자료를 최종 연구대상 자료로 분석하였다.

2.2 연구도구

설문지는 SNS 중독 경향성, 사회적 지지, 사이버폭력,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SNS 중독을 측정하는 도구는 조성현과 서경현[18]이 재구성한 ‘SNS 중독 경향성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20문항으로 문항 형식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척도로 되어 있으며,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SNS의 중독 경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94$ 로 나타났고[18]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94$ 이었다.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홍구표[19]가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12문항으로 문항 형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척도로 되어 있으며,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이 느끼고 있는 주관적인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구표[19]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9$ 로 조사되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92$ 이었다. 사이버폭력 척도를 측정하기 위해 정경희[20]가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24문항으로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92$ 로 나타났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96$ 이었다.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학년, 경제 수준, 현재 SNS 사용 유무, SNS에서 정보공개 수준, SNS를 이용한 기간, SNS 평균 사용시간, 평균 SNS 접속률, SNS에 글을 게시하는 빈도, SNS 인맥 수, SNS를 하게 된 계기로 분류하였다.

2.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18.0을 사용하여 해석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범주형 변수는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였고, 연속형 변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제시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SNS 중독 경

향성, 사회적 지지,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의 평균 비교는 t-검정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사후 분석은 Scheffe’s test를 사용하였다. 사이버폭력과 SNS 중독 경향성 및 사회적 지지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상관분석을 이용하여 알아보았고, 일반적 특성을 보정한 상태에서 SNS 중독 경향성 및 사회적 지지가 사이버폭력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에서 유의 수준은 $p<0.05$ 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포는 아래 Table 1과 같다. 여자가 77.5%, 남자가 22.5%였다. 학년은 2학년 38.0%, 1학년 34.9%, 3학년 27.2%이었다. 경제 수준은 중으로 응답한 학생이 82.4%로 가장 많았고, 하로 응답한 학생은 14.5%, 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3.1%이었다. SNS 사용 유무에서는 사용하고 있음이 92.3%, 사용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7.7%이었다. SNS 정보 공개에서는 반공개라고 응답한 학생이 57.4%, 비공개라고 응답한 학생은 27.5%, 공개라고 응답한 학생은 15.1%이었다. SNS 사용기간은 3년 이상이 62.7%로 가장 많았고, 2년 이상 3년 미만은 21.3%, 1년 미만은 16.0%이었다. 1일 SNS 사용시간을 보면 2시간 미만이 35.2%로 가장 많았고, 3시간 이상이 34.6%,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이 30.2%이었다. SNS 접속률은 매일 접속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73.1%로 가장 많았고, 주 2~6회라고 응답한 학생은 20.4%, 거의 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6.5%이었다. SNS 게시 빈도는 거의 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62.0%로 가장 많았고, 1개월에 1~3회라고 응답한 학생은 21.9%, 1주일에 1~3회라고 응답한 학생은 16.0%이었다. SNS 인맥수를 보면 50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70.7%로 가장 많았고, 20~50명 미만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15.4%, 20명 미만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13.9%이었다.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 = 324)

Variables	Category	N	%
Gender	Male	73	22.5
	Female	251	77.5

School year	1	113	34.9
	2	123	38.0
	3	88	27.2
Economic level	Upper	10	3.1
	Middle	267	82.4
	Lower	47	14.5
SNS use or absence	In use	299	92.3
	Not in use	25	7.7
SNS disclosure	Open	49	15.1
	Half disclosure	186	57.4
	Non-disclosure	89	27.5
SNS period of use	Less than a year	52	16.0
	Less than two to three years	69	21.3
	More than three years	203	62.7
SNS usage time per day	Less than two hours	114	35.2
	More than three hours	98	30.2
SNS connection rate	A little less	21	6.5
	2-6 times a week	66	20.4
	Every day	237	73.1
SNS Posted frequency	A little less	201	62.0
	1-3 times a month	71	21.9
	1-3 times a week	52	16.0
SNS network number	Less than 20 people	45	13.9
	Less than 20-50	50	15.4
	More than 50 people	229	70.7
SNS participation instrument	By friend invitation	64	19.8
	For a wide rang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57	17.6
	For information retrieval	101	31.2
	Etc	102	31.5

3.2 SNS 중독경향성, 사회적지지 및 사이버폭력의 정도 파악

연구 대상자의 SNS 중독 경향성, 사회적 지지 및 사이버폭력의 평균은 아래 Table 2와 같다.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를 보여주면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정규성 가정을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정규 분포 조건을 충족하였다. 대학생의 SNS 중독 경향성은 1.81 ± 0.55 점이었고, 사회적 지지는 4.00 ± 0.78 점이었고, 사이버폭력은 1.38 ± 0.59 점이었다.

Table 2. SNS Addiction tendency, social support and cyber violence

(n = 324)

Variables	M ± SD
Cyber violence	1.38 ± 0.59
SNS Addiction Tendency	1.81 ± 0.55
Social support	4.00 ± 0.78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이버폭력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이버폭력은 아래 Table 3과 같다. 학년에는 1학년(1.52 ± 0.72), 2학년(1.31 ± 0.52) 및 3학년(1.30 ± 0.44)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4.706, p=0.010$). SNS 게시 빈도는 거의 하고 있지 않음(1.33 ± 0.54), 1개월에 1-3회(1.41 ± 0.59) 및 1주일에 1-3회(1.56 ± 0.72)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289, p=0.039$). 성별, 경제 수준, SNS 사용 유무, SNS 정보공개, SNS 사용기간, 1일 SNS 사용시간, SNS 접속률, SNS 인맥수, SNS 참여 계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3. Cyber viol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 = 324)

Variables	Category	Cyber violence		
		M ± SD	t/F	p-value
Gender	Male	1.50 ± 0.69	3.619	0.058
	Female	1.35 ± 0.55		
School year	1	1.52 ± 0.72	4.706	0.010
	2	1.31 ± 0.52		
	3	1.30 ± 0.44		
Economic level	Upper	1.40 ± 0.77	0.184	0.832
	Middle	1.37 ± 0.57		
	Lower	1.43 ± 0.67		
SNS use or absence	In use	1.39 ± 0.60	0.921	0.338
	Not in use	1.27 ± 0.51		
SNS disclosure	Open	1.37 ± 0.58	0.006	0.994
	Half disclosure	1.38 ± 0.57		
	Non-disclosure	1.38 ± 0.64		
SNS period of use	Less than a year	1.35 ± 0.58	0.113	0.893
	Less than two to three years	1.39 ± 0.58		
	More than three years	1.39 ± 0.60		
SNS usage time per day	Less than two hours	1.37 ± 0.62	0.032	0.968
	Less than two to three hours	1.38 ± 0.58		
	More than three hours	1.39 ± 0.57		
SNS connection rate	A little less	1.25 ± 0.35	0.663	0.516
	2-6 times a week	1.36 ± 0.58		
	Every day	1.40 ± 0.61		
SNS Posted frequency	A little less	1.33 ± 0.54	3.289	0.039
	1-3 times a month	1.41 ± 0.59		
SNS network	1-3 times a week	1.56 ± 0.72		
	Less than 20 people	1.31 ± 0.54	0.414	

number	Less than 20-50	1.40 ± 0.64		
	More than 50 people	1.39 ± 0.59		
SNS participation instrument	By friend invitation	1.35 ± 0.54	0.933	0.425
	For a wide rang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1.49 ± 0.72		
	For information retrieval	1.34 ± 0.53		
	Etc	1.39 ± 0.59		

3.4 SNS 중독경향성 및 사회적지지와 사이버폭력과의 상관관계

SNS 중독 경향성 및 사회적 지지와 사이버폭력과의 상관관계는 아래 Table 4와 같다. SNS 중독 경향성 ($r=0.265$) 및 SNS 게시 빈도($r=0.141$)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사회적 지지($r=-0.191$)와 학년 ($r=-0.149$)에서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3.5 SNS 중독경향성 및 사회적지지와 사이버폭력과의 관련성

대학생의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변수들의 관련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변수인 중독 경향성, 사회적 지지, 학년, SNS 게시 빈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아래 Table 5와 같다. 중독 경향성($\beta=0.230$, $p<0.001$)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지지($\beta=-0.202$, $p<0.001$)가 감소할수

록 사이버폭력이 증가하였고, 1학년에 비하여 2학년($\beta=-0.189$, $p=0.002$), 3학년($\beta=-0.144$, $p=0.016$)에서 사이버폭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한 사이버폭력의 설명력은 12.2%였다($F=8.462$, $p<0.001$).

Table 5. The relationship between SNS addiction tendency and social support and cyber violence

Variables	β	SE	p-value	95% CI
Constant		0.204	< 0.001	1.255-2.056
SNS Addiction tendency	0.230	0.060	< 0.001	0.129-0.364
Social support	-0.202	0.040	< 0.001	-0.232--0.073
School year (/1)				
2	-0.189	0.072	0.002	-0.372--0.087
3	-0.144	0.079	0.016	-0.346--0.035
SNS Posted frequency (A little less)				
1-3 times a month	0.041	0.080	0.469	-0.099-0.215
1-3 times a week	0.066	0.091	0.248	-0.074-0.284
Adjusted R ²		0.122		
Durbin-Watson		1.726		
F(p)		8.462(<0.001)		

Table 4. The relationship between SNS addiction tendency and social support and cyber violence

Variables	Cyber violence	SNS Addiction tendency	Social support	School year	SNS Posted frequency
Cyber violence	1				
SNS Addiction tendency	0.265**	1			
Social support	-0.191**	-0.033	1		
School year	-0.149**	-0.046	-0.013	1	
SNS Posted frequency	0.141**	0.345**	0.064	-0.081	1

**p<0.01

4. 고찰

본 연구는 대학생의 SNS 중독 경향성과 사회적 지지가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SNS 중독 경향성, 사회적 지지, 사이버폭력 정도를 살펴보았다. 각 변인들의 평균을 살펴보면 SNS 중독 경향성은 평균 1.81 ± 0.55 (4점 만점)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는 평균 4.00 ± 0.78 (5점 만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동일 도구를 이용하여 SNS 중독 경향성을 조사하였던 홍구표[11]의 선행연구에서도 1.84 ± 0.48 (4점 만점)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는 평균 3.80 ± 0.67 (5점 만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에서는 평균 1.38 ± 0.59 (5점 만점)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정경희[20]의 선행연구에서도 평균 1.20 ± 0.38 (5점 만점)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이버폭력은 학년에서는 1학년(1.52 ± 0.72), 2학년(1.31 ± 0.52) 및 3학년(1.30 ± 0.44)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0$). SNS 게시 빈도는 거의 하고 있지 않음(1.33 ± 0.54), 1개월에 1-3회(1.41 ± 0.59) 및 1주일에 1-3회(1.56 ± 0.72)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39$). 성별, 경제수준, SNS 사용 유무, SNS 정보공개, SNS 사용기간, 1일 SNS 사용시간, SNS 접속률, SNS 인맥수, SNS 참여 계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김현정[21]의 연구에서도 스마트폰에 표출되는 시간이 많을수록 사이버상의 폭력으로 노출되거나 가해, 혹은 피해할 가능성이 높고, 폭력성 또한 월등하게 상향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선행연구에서도 연령이 많을수록 중독 경향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22], 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기기에 대한 친밀함이 저조함의 원인으로 보이며, 어렸을 때부터 인터넷이나 휴대폰에 능숙한 초·중·고생이나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연령이 많더라도 중독 경향성은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23]. 반면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별과 1일 SNS 사용시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최동원[23]의 연구에서는 여자의 중독성이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남자보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더 사용하기 때문으로 추측한 황경혜 등[24]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 Lepp, Barkley & Karpinsky[25] 연구에서

도 스마트폰 사용의 빈도가 많을수록 학점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스마트폰으로 인하여 학습에 몰두하는 시간을 빼앗기는 것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이는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지만 임옥희[26]도 스마트폰 중독 수준은 자기 통제력과 연관성이 있다고 하였고 자기 역제가 되지 않는 이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황경혜 등[24]도 하루 사용시간이 긴 대상자가 중독 위험성이 강하고, SNS 사용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기능과 신속성, 스마트폰 기계의 발전으로 정보수집, 간편성이 향상되면서 이에 대한 기대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다.

셋째, SNS 중독 경향성 및 사회적 지지와 사이버폭력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SNS 중독경향성 및 SNS 게시 빈도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사회적 지지와 학년에서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스마트폰 중독이 사이버폭력을 미치는데 상관을 보인다는 정경희[20]의 결과와 일치하였고 또한 서울시가 2013년 11월 서울특별시 청소년(초등4학년~고등2학년) 4998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과 사이버블링 실태조사」를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일수록 사이버 폭력에 더욱더 표출된다는 조사 결과와 일치한 반면, SNS 중독 경향성과 사회적 지지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는 오윤경[9]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넷째, 대학생의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변수들의 관련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변수인 중독 경향성, 사회적 지지, 학년, SNS 게시 빈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중독 경향성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지지가 감소할수록 사이버폭력이 증가하였고, 1학년에 비하여 2학년, 3학년에서 사이버폭력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병년[27]의 연구에서도 중독적 인터넷 사용이 증가할수록 대학생의 경우 주관적 사회적 지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제적인 사회적 지지의 궁핍을 소실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인터넷에 더욱 집착하거나[28,29], 온라인에서 더 친밀함을 느끼게 됨으로써[27] 일상 속에 방해를 주는 곤란한 인터넷 이용 요인이 드러나게 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정경희[20]의 연구에서도 자녀와 부모와의 집착이 미치지 못할수록 사이버 폭력의 체험이 있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인터넷 중독임에도 무릅쓰고 깨달은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여러사람과의 사

건 상황에서 많은 사건 해결을 더 많이 도출해내는 개인 문제 해결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30], 사회적 지지는 인터넷 중독을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 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전국 초등 4학년~고등 3학년 재학생들의 학생 간의 폭력 체험 및 판단 등을 17개 시·도교육감이 합동으로 조사한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응답률이 1.3%(5만 명)로 지난해 1차 조사 대비 0.4% 증가하였는데, 중·고등학생(각 0.2%, 0.1% 증가)보다 초등학생의 피해응답률 증가(0.7%)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해 종류별로 학생 천 명당 피해 응대 가짓 수는 스토킹(3.0건), 집단 따돌림(4.3건), 언어폭력(8.7건)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종류별 비율은 스토킹(11.8%), 집단 따돌림(17.2%), 언어폭력(34.7%) 등의 순이며, 특히 신체폭행(10.0%) 보다 사이버 괴롭힘(10.8%)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31]. 청소년 후기이자 성인 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은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시점으로 심적인 변화와 더불어 본능적, 자의적, 사회적 욕망이 높아지기 때문에 절망되는 시기가 많아지고 사회적 체험의 미숙함으로 인한 변화 기능의 결핍으로 상당한 갈등과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된다[32]. 그러므로 스마트폰을 처음 접하게 되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기부터 스스로의 행동을 인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을 길러 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가정에서의 많은 이목과 보육은 물론, 학교 및 지역사회 차원의 관심 또한 요구된다. 특별히 다양한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이고, 자기 통제력 향상을 위해 자기 통제력이 열등한 경우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이를 향상할 수 있는 개별 면담 계획표의 강화 등은 스마트폰 중독 예방은 물론 인터넷, 휴대전화의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6]. 대학에서는 대학생의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해서 거기에 같이 하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 및 올바른 사이버 사용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사이버 폭력으로 인하여 위급한 상황에 있는 학생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상담과 이를 대처하는 유연성이 필요하겠다. 이에 본 연구자는 대학생에 알맞은 사이버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연구와 개발을 제언한다.

끝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을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만을 상대로 하였다라는 점에서 대상의 특성

을 드러낼 수 있지만 조사 결과의 일반화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일부 지역으로 편의 추출하였고, 대학의 종류(2년제, 3년제, 4년제)에서 취약한 부분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SNS 중독 경향성과 사회적 지지가 사이버 폭력과의 상관관계 원인들을 보다 명확한 설문을 통해 후속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 척도 이외에 다양한 척도 이용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범위를 더욱더 구체화하여 후속 연구에서 관찰 해 봄으로써 사이버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SNS 사용이 활동적인 대학생들을 목표로 SNS 중독 경향성과 사회적 지지가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성을 파악하고, SNS로 인한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여 사이버 폭력의 대비를 위한 건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본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과에서 중독 경향성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지지가 감소할수록 사이버폭력이 증가하였고, 1학년에 비하여 2학년, 3학년에서 사이버폭력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스마트폰 사용 연령이 점점 저 연령층으로 스마트폰 보급률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근래에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판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스마트폰 중독이 가증하는 수와 비례하여 사이버폭력 또한 증가할 수 있음을 연구결과는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이버 폭력의 기원이 될 수 있는 대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사용규제와 사이버 윤리의식 교육을 통하여 대학생의 사이버 폭력을 경감하는데 기초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REFERENCES

- [1] H. O. Jeon. (2016). Effects of academic emotions and interpersonal relations on SNS addiction tendency by gender difference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6), 269-277.
DOI : <http://dx.doi.org/10.5762/KAIS.2016.17.6.269>
- [2]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KISA)*. (2015).

- <http://isis.kisa.or.kr/board/>, <http://kisa.or.kr>
- [3] K. H. Jeong, J. H. Jeong & J. H. Shin. (2010). The Effects of Corporate SNS (Social Networking Service) Activities on Brand, Word of mouth, and Purchase Intention., *Korean Academic Society of Business Administration*, 8, 1-8.
- [4] S. S. Oh. (2010). *A study on the uses and gratifications of twitter and facebook*,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5] S. Cohen & H. Hoberman.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99-125.
DOI : <https://doi.org/10.1111/j.1559-1816.1983.tb02325.x>
- [6] B. N. Kim, E. J. Ko & H. I. Choi. (2013).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smart-phone addiction in university students : A focus on differences in classifying risk groups, *Studies on Korean Youth*, 24(3), 67-98.
- [7] M. H. Park. (2014). *Relationship of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Self-esteem and SNS Addiction Tendency in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Educational master's thesis. Kyungsoong University, Pusan.
- [8]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KISA). (2017). <http://isis.kisa.or.kr/board/>, <http://kisa.or.kr>
- [9] G. S. Woo & J. W. Kang. (2011). Usage Gratification, Dependence and Problematic Use of Mobile Type SNS(Social Network Service):Centering on Twitter, *Journal of Cyber 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28, 89-127.
- [10] H. S. Choi, H. K. Lee & J. C. Ha. (2012). The influence of smartphone addiction on mental health, campus life and personal relations - Focusing on K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3(5), 1005-1015.
DOI : 10.7465/jkdi.2012.23.5.1005
- [11] Y. K. Oh. (2012).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NS Addiction tendency on Loneliness, Depress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ocial Suppo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counseling University, Seoul.
- [12] J. S. Park. (2012). *The Variables in Influencing on Smart phone Addiction in Adolescents and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Dankook.
- [13] J. Y. Kang. (2012). *The effect of stress and the way of stress coping, impulsivity of employees on smart-phone addiction*, Catholic University master thesis, Seoul.
- [14] B. Y. Kim. (2012). *The Correlations Among Highschool students' Internet Game Addiction, Smartphone Addiction, the Lack of Sleep and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amyuk University, Seoul.
- [15] Y. M. Park. (2011). *A Study on Adults' Smart Phone Addiction and Mental Health*,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Sangji University, Wangju.
- [16] J. H. Suh. (2012).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 among personal, parental, peer, and smart-phone usage motivation with Smart-phone addiction in high-school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Master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 [17] K. S. Oh. (2010). Internet Addiction and Internet Ethics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2(5B), 2703-2712.
- [18] S. H. Cho & K. H. Suh. (2013). An Exploratory Study on Factors Related with SNS Addiction Proneness: Focus on Covert Narcissism, Self-Presentational Motivation, and Sense of Alienation,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8(1), 239-238.
- [19] K. P. Hong & H. S. Jeon.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sns addiction tendency and their interpersonal problems: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7(1), 34-67.
- [20] G. H. Jeong. (2017). *Influenc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Parental Attachment and Addiction Tendencies on Smartphones on Cyber Violenc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okmin University, Seoul.
- [21] H. J. Kim.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and Cyber Violence in Youth: Mediating Effect of Aggress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wangwoon University, Seoul.
- [22]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2013). *The 2013 Survey of Internet Addicction*.
- [23] D. W. Chol. (2015). Physical activity level, sleep quality, attention control and self-regulated learning along to smartphone addiction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1), 429-437.
DOI : 10.5762/KAIS.2015.16.1.429
- [24] K. H. Hwang, Y. S. Yoo & O. H. Cho. (2012). Smartphone Overuse and Upper Extremity Pain, Anxiety, Depress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mo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2(10), 365-375.
DOI : 10.5392/JKCA.2012.12.10.365
- [25] A. Lepp, J. Barkley & A. Karpinski. (2014). Frequent CellPhone Use Linked to Anxiety, Lower Grade sand

Reduced Happiness in Student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31, 343-350.

- [26] O. H. Im. (2014). *Smartphone Addiction and its Relations with Mental Health among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si.
- [27] B. N. Kim, E. J. Ko & H. I. Choi. (2013).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smart-phone addiction in university students : A focus on differences in classifying risk groups, *Studies on Korean Youth*, 24(3), 67-98.
- [28] J. G. Kim, J. C. Lee & M. S. Choi. (2016).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and stress on internet addiction of high school students, *Social science review*, 35(1), 87-106.
- [29] J. W. Park & M. J. Kwon. (2018). The Convergence Effect of Academic Resilience, Social Support, and Happiness on SNS Addiction Tendency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4), 453-460.
DOI : <https://doi.org/10.15207/JKCS.2018.9.4.453>
- [30] B. S. Kim & E. H. Jung. (2004). The Relationships of Aggressio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ognitive Abilities of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of Adolescents among Addiction to Internet Chatting,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2(1), 91-99.
- [31] Ministry of Education. (2018). *A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School Violence in 2018*, survey.eduro.go.kr/,
- [32] D. W. Choi. (2015). Physical activity level, sleep quality, attention control and self-regulated learning along to smartphone addiction among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1), 429-437.
DOI : <http://dx.doi.org/10.5762/KAIS.2015.16.1.429>

유 은 영(Yu, Eun Yeong)

[정회원]



- 2000년 2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 (병원행정학석사)
- 2009년 2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 (보건행정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광주보건대학교 보건행정과 교수
- 관심분야 : 보건학, 병원행정, 건강보험
- E-Mail : yuy36@ghu.ac.kr

정 은 영(Jung, Eun Yeong)

[정회원]



- 2012년 2월 : 조선대학교 대학원 (보건학석사)
- 2017년 2월 : 조선대학교 대학원 (보건학박사)
- 2012년 9월 ~ 현재 : 광주보건대학교 보건행정과 겸임교수
- 관심분야 : 보건학, 의무기록실무, 건강보험
- E-Mail : jey0802@naver.com